

해외파병 장병 격려 다과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제 사회에 훌륭하게 기여한데 대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 나라가 해외파병하고 있는데 한국군이 가장 우수하고 임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 받을 때 까지 여러분들 고생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라크 날씨가 더운데 우리는 숨만 쉬어도 힘 드는데 작전수행 하느라 힘들었을 것입니다. 동티모르 지도를 보니까 낯선 곳인데다가 말도 안 통했을 텐데 그래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나라 위해서 큰 기여를 했습니다. 기분은 국위선양도 하고 다시 파병도 했으면 싶지만 현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라크 추가 파병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마음을 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자리가 여러분 노고 치하하는 자리지만 겸사해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마음을 정하는데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듣고 국방장관 참모총장들 작전기획 본부장도 모두 듣고 여러분 한마디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윗분들 눈치 보지 말고 솔직하게 보고 느낀 대로 편안하게 말해주십시오. 지휘관들도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지난번에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제마부대장과 전화 통화했습니다. 그때 초청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그 부대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